

## ‘타미플루’ 원료인 Star anice의 사촌 “붓순나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9월의 나무로 "붓순나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붓순나무는 중국의 자생식물로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인 팔각(八角, 영명 Star anice)과 분류학적으로 사촌간이다. 중국의 팔각은 중국의 대표적인 향신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붓순나무는 종자에 독성이 있어 향신료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향기가 좋아 관상용이나 절화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달의 나무로 붓순나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붓순나무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로 꽃봉우리의 모양이 붓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붓순나무는 중국의 자생식물로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의 원료인 팔각(한자명 : 八角, 八角茴香, 大茴香, 학명 : Illicium verum Hook.f.)과 분류학적으로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이다.

붓순나무는 붓순나무과(科)에 속하는 상록성의 중간 키나무이다. 그늘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햇볕이 많은 곳보다는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크기는 3~5m정도까지 자란다. 나무껍질, 잎 그리고 꽃에는 특유의 향긋한 향이 있다. 꽃은 3~4월에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연한 녹색을 띠는 흰색으로 핀다. 열매는 바람개비처럼 6~12개가 배열되며 9~10월에 익는다. 열매에는 향기가 있어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종자는 Skikimin, Skikimitoxin, Hananomin 등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 원료로 취급하고 있다.

쓰임은 관상, 약용 및 향료로 쓰인다. 사계절 푸른 잎을 갖는 상록수이고 꽃의 향기가 좋아 남부지방에서는 정원수나 공원수로 적합한 나무이다. 나무껍질은 혈액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팔각은 독성이 없어 향신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붓순나무는 독성이 있어 향신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달의 풀로는 “배초향”을 선정하였다. 배초향은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방아풀”, “방아잎”이라 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뒷밭에 심어 향신료로 사용하는 토종 허브식물이다.

‘타미플루’ 원료인 Star anice의 사촌 “붓순나무”

햇빛이 잘 들고 다소 습기가 있는 산지에서 높이 40~100cm 정도로 자란다. 줄기는 네모지고 잎은 서로 마주나며 풀 전체에서 향기가 난다. 꽃은 7~9월에 줄기의 끝에서 자주색으로 핀다. 종자는 10~11월에 익으며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4월에 뿌리면 바로 싹이 돋는다. 쓰임은 주로 잎을 향신료로 사용하는데 민물고기매운탕이나 추어탕을 요리할 때 생선의 비린내 제거용으로 들어간다. 잎을 그늘에 말려서 차로도 사용하고 한방에서는 곽향(藿香)이라 하여 소화불량, 설사 등 소화기계통의 기능을 좋게 하는 약재로 사용하며 당뇨나 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 **山林**

문 의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 신창호 연구관(031-540-1081)



붓순나무



배초향